

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께

한국고분자학회 수석부회장 후보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본 소견서를 통해 저는 직책 수행의 다짐을 넘어, 우리 학회의 미래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진심 어린 각오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학회는 이제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회장단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이며, 이를 통해 한국고분자학회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술 공동체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학회 활동은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중견 연구자들에게는 학문적 성숙의 기반을 제공하며,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고분자 과학의 발전과 국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저는 "가고 싶은 학회", "배울 것이 있는 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에 공감하며,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역할에 기여하고자 이번 수석부회장직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1. 학회 재정 기반 강화

전임 회장단의 노력으로 안정적 재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화학 및 화공 산업의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들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학회 장기적 발전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수익 구조의 체계적 다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 2. 학술 발표 기회의 다양화

모든 회원의 연구 결과는 소중합니다. 누구나 자신 있게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학술대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발표 저변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 공유의 장으로서 학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3. 신진 회원 참여 확대

학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진 회원들의 소속감과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위원회와 부문위원회 및 지부 활동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회 행사 참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하여 젊은 세대의 학회 참여를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 4. 연구계·산업계 회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학계와 연구계 및 산업계 간 긴밀한 연계는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학계-연구계-산업계 간 병렬적 세션 구성을 도입하여 다양한 소속 배경을 지닌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학생회원으로 학회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학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학회 활동 속에서 여러 선배·동료·후배들로부터 배움과 격려를 받아왔고, 이제는 그 감사의 마음을 실천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 많이 들으며 성심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한국고분자학회 수석부회장 후보

**이택승 올림**